

제37회 간호문학상 수상작

간호사신문이 주최한 제37회 간호문학상 수상작이 확정 발표됐다. 올해 간호문학상 공모에는 소설 11명, 수기 24명, 시 50명, 수필 32명 등 4개 부문에서 총 117명이 응모했다. 간호사 85명과 간호대학생 32명이 참여했다.

각 부문별 수상작은 다음과 같으며, 수필부문 당선작은 수상자가 없다.

◇소설부문 △당선작= 꿈, 노래 (박진숙·세종시 한마음효양병원) △가작= 눈 내리는 밤 (최은희·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수기부문 △당선작=

내 일상의 아름다운 풍경들(김혜선·국립중앙의료원) △가작= 메르스가 우리에게 남긴 건 상처만은 아닙니다(윤혜진·강동경희대병원) ◇시부문 △당선작= 폭우(박소영·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가작= 꽃의 □(임) (박지나·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수필부문 △가작= 거짓말(우예진·한서대 간호학과 3학년)

수상작품은 간호사신문 홈페이지(www.nursenews.co.kr)에서 볼 수 있다.

지독한 외로움 표현해보고 싶었다

소설 당선작 소감



박진숙
세종시 한마음효양병원

사춘기에 자기만족으로 시작한 소설 쓰기. 그 때 감정을 지금껏 버리지 못하고 틈틈이 써보곤 한 것이 오늘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

완성하지 못하고 버려둔 습관 습작이 있다.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나를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결말을 맺고 글을 완성할 수 있어 스스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남에게 보일 만만치 않던 차에 당선 영광을 안게 되어 한편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나는 왜 소설이 쓰고 싶었던 걸까. 누구나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게 마련이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위로가 되기보다 지독한 외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순간이 있다.

그런 것을 표현해보고 싶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야 글다운 것을 겨우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숙하고 부끄러운 글을 채택해 주신 전상국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공간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자리를 마련해준 간호사신문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격려로 생각하고 정진해보려 한다.

느리더라도 조금씩 나아가다

수기 당선작 소감



김혜선
국립중앙의료원

마음이 순간 기쁨으로 출렁입니다. 언젠가 꼭 글을 쓸 것이라는 저의 꿈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를 보듬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대단해요”라고 토닥여준 작은 암생이 수연이 그리고 나의 반쪽 암생이, 나의 포깅이들을 사랑으로 봐주시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너는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이라고 격려해주신 예서 선생님, 또 당연히 수상할 줄 알았다는 나의 멘토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선확인 전화가 왔을 때 옆에서 축하해준 장우, 미령이, 지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샘은 못하는 게 뭐예요?”라며 나를 웃음 짓게 해준 사랑하는 여치 민정이를 비롯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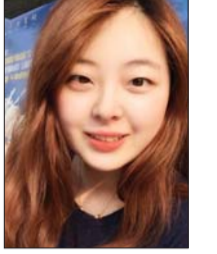
나의 빛나는 별들 서6병동의 윤경이, 정원이, 세영이, 민영아 사랑해!!

앞으로 저의 꿈은 간호사로서 전해주고 싶은 글들을 책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느리더라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인생의 의무’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나의 주변의 이들과 소곤거리며 웃음 짓는 바로 이 순간임을 항상 기억할 겁니다.

질긴 삶 뺨지 않고 글로 소화

시 당선작 소감



박소영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아, 제가 당선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잠깐 멍했습니다.

100세 인생이라는데, 그에 반의반을 겨우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25년 중 어느 하나 쉬운 해(年) 없었지만 이렇게 힘든 해(年)는 처음 살아 봅니다.

다사다난한 2016년이었기에 마지막 달인 12월이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당선으로 올해의 온점을 의미 있게 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겪어본 질긴 삶을 뺨지 않고 글로써 소화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심사평 | 소설·수기부문

수기 작품, 생생한 체험과 사유 돋보여

소설과 수기 응모작품들을 정성껏 읽었다. 예년에 비해 다소 뒤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 힘든 간호업무 속에서도 이 정도의 글 솜씨를 보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자 글 하나하나가 모두 귀하게 보였다.

〈소설부문〉 그 양이나 질에 있어 지난해 수준에 비해 다소 뒤진다는 느낌이

있었다. 대체로 소설이 무엇인가 하는 기본 바탕이 빈약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 작품의 형상화까지는 다소 먼 거리감에 아쉬움이 컸다.

•당선작: 「꿈, 노래」(박진숙)는 아이 하나씩을 각각 맡아 벌거 중년 부부의 가족이 어느 날 저녁 모인 이유를 독자의 뒤통으로 들린다든가 모처럼 찾아간

남편의 집 현관이 열리지 않는 장면 보여주기의 결말 처리 등은 소설 읽는 맛을 제대로 느끼기에 충분했다.

•가작: 「눈 내리는 밤」(최은희)은 이혼한 친구의 어린 딸이 재혼한 엄마의 출산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화자가 어린 시절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간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야기이다. 다소 감상

적이라 선택이 쉽지 않았지만 결혼 가정의 그 아름다움과 상처를 따듯이 보듬는 솜씨에 호감이 갔다.

선에 들지는 못했지만 「여름, 몽중몽」은 잘 다루면 인상작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다는 것을 밝힌다.

〈수기부문〉 체험의 절실함, 서술의 진실성, 역경 극복의 의지 등을 기준 삼아 다음 두 편의 입상작을 내기로 했다.

•당선작: 「내 일상의 아름다운 풍경들」(김혜선)은 다른 장소에서는 볼 수 없는, 간호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회상한 글 솜씨와 그

사유의 깊이가 만만치 않다. 특히 환자가 숨을 거둔 뒤 그 어지러운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 등의 묘사가 매우 인상적이다.

•가작: 「메르스가 우리에게 남긴 건 상처만은 아닙니다」(윤혜진)는 지난해 온 국민을 긴장시켰던 메르스 사태의 현장 분위기가 정말 실감나게 서술됐다. 당시 의료인 가족 실태조사로까지 변진 상태라든가 격리실 업무에 임했던 의료진들의 모습이 생생이 증언된 글이다.

비록 선에는 들지 못했지만 「소록도

에서 진짜 간호를 배우다」 「일상에서 찾는 감사함」 등 두 작품은 읽는 이에 따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글이었다는 것을 아쉬운 마음으로 밝힌다.

밝힌 이들에게는 더 정진하라는 말로 축하를 대신한다.



전상국
작가/강원대 국문학
과 명예교수

심사평 | 시·수필부문

생각을 언어로 정지시키는 능력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은 어느 순간 떠오른 생각이나 발견을 언어로 정지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나 발견을 언어로 정지시켜 놓으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다시 그 때의 생각이나 발견을 손쉽게 기억할 수 있다. 사람들이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은 기억보다 기록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학작품을 쓰는 일은 그러한 작업 중에서도 특별한 작업이다. 일상적

생각이나 발견을 평이하게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생각이나 발견을 참신한 언어로 정지시킨 것이다. 금방이라도 휘쳐나올 것 같은 심상한 팔뚝거리임이 느껴지는 방식으로 정지시킨 것이다. 문학작품을 쓸 때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이다. 생각이나 발견의 심상함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언어를 찾거나 만드는 일이 바로 작가의 숙명인 것이다.

〈시부문〉 당선작으로 뽑은 박소영의 「폭우」에는 언어의 심상한 팔뚝거리임이 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빗발을 표현한 언어에는 현실의 빗발처럼 힘차게 살아 움직이는 말의 힘이 들어 있다. 이를테면 “정자나무 뒤통수를 내리치는 뽕의 사나움 같은 번개는/물소떼들이 내뿜는 열기가 아닐까”와 같은 구절에서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여름에 대지에 쏟아지는 소나기와 소나기를 맞으며 먼지와 안개를

내뿜는 대지,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비락을 맞는 정자나무의 모습을 무리를 지어 돌진하는 물소떼의 모습으로 비유한 표현력이 뛰어나다. 「폭우」외의 또 다른 작품인 「동백꽃」도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서 당선자의 시적 능력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가작으로 뽑은 박지나의 「꽃의 □(임)」는 섬세한 관찰력과 그 관찰력을 언어로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한 송이 꽃의 모습에서 박지나가 읽어내는 ‘푸른 한숨’과 ‘벨 것 같은 위험한 침묵’은 섬세한 관찰력을 보여주며, “기호화된 너의 마음이/자음과 모음이 되어 피어오른다”와 같은 구절은 언어로 형상화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꽃을 우주와 세계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읽는 것은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폭우」보다는 소품적인 성격이 강해서 가작으로 뽑혔다.

〈수필부문〉 응모작의 수준이 예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읽었을 때 우리의 일상적 삶에 대해 어떤 조그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우예진의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란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서로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서로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수필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글을 쓰려는 사람, 특히 문학작품을 쓰

려는 사람은 언어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한다. 원석을 세공하여 영롱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듯이 일상적 언어를 갈고 다듬어 빛나는 표현을 만들어내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어떤 표현 하나가 주는 행복함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한 속상함으로 목매어 우는 사람이 되어보기를 부탁한다.



홍정선
문학평론가/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 더 JUMP!

20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



간호사를 위한 온라인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